

경남도농업기술원,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협약 체결

-28일 오전11시, 경남도원-한국산업인력공단-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
-농기계 교육훈련과 시설사용 무상 지원 등 상호협력

정도정 기자

최종 기사입력 2018-03-03 18:23



경남도농기원 청사 전경

경남도농기원이 28일 오전 11시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고용허가제로 도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직무능력과 사업장 적응을 돕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.

이날 협약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공역식 지사장 외 3명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정점자 센터장 외 2명이 함께 도 농기원 이상대 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협약서 서명과 상호 교환이 진행되었다.

업무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농기계 교육훈련과 시설사용 무상 지원 등 훈련과정 운영지원,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방지를 위한 귀환의식 교육지원, 교육생 모집 등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, 경남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비전문취업자 3만5590명,

방문취업자 6189명으로 전국대비 외국인 6.4%가 경남에 거주하고 있다.

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경남도농기원은 오는 7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 중 10회에 걸쳐 외국인근로자가 쉬는 일요일에 맞춰 농기계교육을 실시하게 되며,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나갈 계획이다.

도 농기원 이상대 원장은 “이번 협약으로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,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직무능력과 사업장 적응력을 키워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고 말했다.

한편,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제조업, 건설업, 농축산업, 어업, 서비스업 등 해당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최장 4년 10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. 경남=정도정 기자

[프린트](#)[취소](#)